



지난 2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도서관을 찾은 재학생·졸업생이 학기시험 및 취업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보다 시설이 좋고 무료인 대학 도서관 이용객이 늘면서 자리 잡기 경쟁도 치열해졌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대학가 ‘열공모드’... “도서관, 빈 자리가 없어요”

대학 도서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다. 청년 실업 100만 시대의 대학가는 ‘열공’ 모드에 들어갔다. 재학생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점관리에 열안이고 취업 준비생 등 사이에서는 각종 국가고시·어학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 28일 밤 9시에 찾은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 열람실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였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12개 열람실에 마련된 좌석 2802개 중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일부 도서관·단과대는 시험기간 동안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도서관 자리 경쟁에서 가방이나 책을 이용해 자리를 맞춰놓는 수법(?)은 이제 구식으로 불린다. 학번이나 학생증(스마트카드) 등 개인 인증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자리 맞추는 방법도 전태만상을 보였다. 수첩에 학번을 10

극심한 취업난 반영
재학생·취업 준비생 경쟁
졸업생까지도 열람실 찾아

개씩 적어와 도서관 개관시간에 맞춰 발권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학과 홈페이지 등에 엑셀(표) 파일로 저장된 재학생 명단과 학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올 들어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오른 도서관 관련 민원은 전남대 109건, 조선대 44건이었다. 이중 대다수는 ▲미발권 좌석점유 ▲대리 발권 ▲도서관 내 도난·추행 등에 대한 불만이었다.

조선대 중앙도서관은 1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좌석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전세내듯 자리를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번에 4시간 열람실 사용이 가

학번·학생증 잇단 도용
학교측 좌석발권제 전환
운영 세칙 마련 등 노력도

능하며 더 이용하고 싶으면 연장 신청을 해야한다. 지난 8월에는 자유열람이 가능했던 2열람실을 좌석발권제로 전환했다.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면서 도난사고가 잦고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는 것이 도서관 운영본부 측 설명이다. 일반인은 열람실을 이용조차 할 수 없다.

졸업생과 인근 주민을 포함한 대학 도서관 이용자는 월 15만원 정도 요금을 내야 하는 사설 독서실이나 커피숍 등의 스타디움과 다르게 무료로 쓸 수 있어서 대학교를 찾는다. 특히 졸업생은 공부하기에 익숙한 공간이어서 후배의 따가운 눈총을

무릅쓰더라도 모교 도서관을 이용한다. 대학 도서관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견줘도 학술 서적이나 자료가 풍부한 편이고 시설이 좋은 편이라 선호하는 이용자가 많다.

졸업생에게도 말 못할 애환이 있다. 전남대 졸업생 이고은씨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시험기간은 재학생에게도 자리가 부족해서 학기를 피해 방학 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며 “일반인 전용(264석)을 제외한 학생 전용 열람실에는 발권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서관 운영본부나 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운영세칙에 의해 정기적으로 열람실을 돌며 자리 점검을 하고 있으나 미발권 좌석 점유나 대리 발권을 적발한 사례는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반쪽을 사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학교 안전 ‘허술’

안전지킴이 1명이 학생 400~500명씩 관리

전남은 고성능 CCTV설치 예산 한푼도 없어

학교안전 지킴이 1명당 관리해야 할 학생이 광주 500명, 전남은 400명에 달했다.

학교 내 폐쇄회로TV(CCTV)는 성능이 우수한 100만 화소 이상급의 경우 설치율이 여전히 20%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학교안전 예방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배치된 학교 지킴이 수는 모두 1028명이다. 학교안전 지킴이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위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배치된 인력이다.

하지만 전체 학생 수에 비해 지킴이 수가 턱없이 부족해 기대했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광주지역 지킴이는 445명에 불과해 전체 초·중·고 학생 수와 22만481명과 비교하면 지킴이 1명당 495명의 학생을 관리하는 셈이다.

전남에도 583명의 지킴이가 배치됐지만 초·중·고 전체 23만258명과 비교하면 지

킴이 1명이 학생 395명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학교안전 지킴이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470명과 비교해도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부담이 큰 편이다. 학교 CCTV도 인력 식별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상급 설치율이 광주는 22.3%, 전남은 28.1%에 그치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이 누군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40만 화소 이하급도 광주에는 18.2%, 전남 13.4%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CCTV 설치 예산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10억9000만원에서 올해 2억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전남은 지난해와 올해 편성된 예산이 없는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반짝추위 내일 밤부터 비소식

29일 광주·전남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더 떨어지는 등 반짝추위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9일 광주·전남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많은 구름이 끼겠다”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곳곳에 서리가 끼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고 28일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4도, 낮 최고기온은 19~22도 분포를 보일 것이다. 이는 전날 아침기온보다 1~3도 가량 낮은 기온이다.

30일 밤부터 천둥·번개·돌풍을 동반한 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는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 뒤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기자 pboxe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0 몰림 11:36
해질 17:42 몰짐 22:15

국화꽃 향기 느껴지나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7/22	보성	맑음	5/20
목포	맑음	9/21	순천	맑음	9/21
여수	맑음	14/19	영광	맑음	4/21
나주	맑음	2/22	진도	맑음	7/20
완도	맑음	9/21	전주 맑은뒤흐림	5/21	
구례	맑음	4/20	군산 맑은뒤흐림	5/19	
강진	맑음	6/21	남원 맑은뒤흐림	3/20	
해남	맑음	5/21	흑산도 맑은뒤흐림	14/19	
장성	맑음	3/2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0.5	동~남동	0.5~0.5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해	서부	북동~동 0.5~0.5	북동~동	0.5~0.5
남해	서부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5:19	10:27
		18:03	23:09
여수		12:29	05:44
		11:42	18:41

◇주간 날씨

30(목)	31(금)	11/1(토)	2(일)	3(월)	4(화)	5(수)
☀	☁	☁	☁	☁	☀	☀
9/21	15/20	16/19	14/17	9/15	6/17	7/18

◇생활지수

식중독	41
운동	70
빨래	90

대리운전 기사들 “고맙다, 전동 킥보드”

택시비 절감 대만족...도심 야간 이용 사고 우려도

대리운전 기사끼리 ‘2인1조’로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이동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전동 킥보드’(Kick Board·사진)가 등장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방식을 180도 바꿔놓은 것이다.

예전엔 ‘2인1조’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나 홀로’ 이동방식이다.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 킥보드가 유행처럼 번지는 이윽다. 대당 가격은 20만~70만 원으로, 휘발유 1.2ℓ(연료량)를 주유하면 30km 이상 탈 수 있다. 최근엔 경차·방향지시등이 설치된 전기 충전식(220V) 킥보드도 출시됐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킥보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동간 드는 비용 때문이다. 대부분 ‘2인1조’로 움직일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데, 하루 평균 10건(건당 1만 원 기준)을 대리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연료비만 2~3만 원 가량 든다는 게 대리운전 기사들의 설명이다.



승용차를 이용한 것보다 킥보드를 이용하는 게 수익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얘기다.

최대시속도 25~30km에 달해 기동성도 매우 뛰어나다.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고객들의 입장을 감안하면 탁월한 이동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킥보드 이용시간대가 주로 야간인데다, 복잡한 도심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어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kwangju.co.kr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들

천기누설 약초보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서재일·김필래·이광연 감수

MBN <천기누설> 제작팀이 1회부터 85회까지 소개한
몸에 기적을 일으킨 200여 종의 약초 특별판!

천기누설 약초보감

천기누설 시리즈

21세기 가정집에 꼭 상비해야 할 책!

천기누설 1~8권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일·김필래·이광연 감수 | 정권 124,000원

MBN <천기누설> 제작팀 지음 | 서재일·김필래·이광연 감수 | 정가 85,000원
인터넷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 및 전국 서점에서 판매합니다. 문의 02-332-4972